



## 2. 언약과 저주

구약 성경의 언약이 그 형식과 내용에

33)를 선언하신 후 언약을 완전히 체결 하셨다(24:1~11).

있어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국제 조약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지난 20세기 구약학계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멘덴홀(G. Mendenhall 1955)이 구약의 언약 형식과 히타이트의 봉신 조약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처음 제시한 후, 성경의 언약과 국제 조약의 관계를 다루는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구약성경의 언약과 고대 근동아시아의 국제 조약이 (1) 서언, (2) 역사적 서문, (3) 율법, (4) 저주와 축복, (5) 언약의 비준을 기본 요소로 담고 있다는 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의 구조적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저주와 축복을 본다면 이것들은 독자적인 주술적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 속에서 언약을 유지하는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자면, 저주와 축복은 그 자체가 죽음과 생명을 가져오는 힘이 아니라 언약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시행해 주는 ‘행정적인’(혹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집트의 대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시고(출 19:4), 그들을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로 즉, 모든 백성들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출 19:6)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제안하셨다(출 19:7),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으므로(출 19:7)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출 20:1~23:19), 순종에 따르는 축복(23:20~31)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23:32~

시나산 언약의 기본적인 구조와 요소는 신명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신명기의 구조는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1) 서언(1:1~5), (2) 역사적 서문(1:6~4:43), (3) 율법 수여와 강론(4~26장), (4) 축복과 저주: 상급과 심판(27:1~30:20), (5) 언약의 계승과 비준(31~34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구조 역시 ‘축복과 저주’가 언약의 행정적인 장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렇게 신명기의 구조가 언약 안에서 저주의 역할을 잘 드러내 주지만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깔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며 백성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함을 신명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 율법은 먼저 십계명으로 주어졌고(신 5:6~21) 언약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제시한다.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6:5).

따라서 구약신학의 맥락에서 본다면 시나산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에 깔린 ‘은혜 언약’이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유지되거나 파기되는 소위 ‘행위 언약’이 아니었다. 물론 시나산 언약은 조건성이 극대화된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기초와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다. 이런 점에서 시나산 언약의 조건성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조건성(창 17:9)을 극대화한 것으로, 이후 다윗 언약의 조건성(삼하 7:14, 시 89:30~33)과 새언약의 조건성(렘 31장, 요 14:15)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구속언약의 통일